

홈 > 뉴스 > 기획 > 新 탐라시대...제주인 리포트

(4)'공학도 꿈 키워 특허 기업 일궈내다'

강민식 (주)미츠마루 사장...고품질 플라스틱 식탁보 등 만들어 성장

데스크승인 2015.03.27 김태형 기자 | kimth@jejunews.com



▲ 강민식 (주)미츠마루 사장

'민족학교에서 공학도의 꿈을 키워 특허 기술과 철저한 품질 관리로 작지만 내실있는 기업을 일궈내다'

일본 오사카에서 플라스틱 성형제품 생산업체인 (주)미츠마루를 경영하고 있는 강민식 사장(78)은 이공계 출신답게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고품질 제품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재일제주인 2세 기업인이다.

고무공장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 민족학교인 건국고등학교에서 인재 양성 교육을 받은 강 사장은 명문대학인 와세다대학 이공학부 기계과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학도로서의 남다른 열정을 불태웠다.

졸업 후 민족 차별로 취직할 수 없었던 시대적 아픔을 이겨내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직장생활을 접게 된 강 사장은 이후 1년간의 기술 연구 끝에 플라스틱 제품인 '수지 식탁보'를 만들게 되면서 기업가의 길로 들어섰다.

1966년 '미츠마루산업'으로 출발한 강 사장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뛰어난 '수지 식탁보'로 탄탄한 기반을 쌓은 후 특허기술로 '인조잔디'를 개발해 잇따라 공장을 증설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다.

수지 식탁보를 한국으로 수출하던 강 사장은 1991년 수지 식탁보 제조 거점을 한국으로 이전, 경기도 안산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고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성과도 일궈냈다.

강 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95년 회사를 법인화해 상호를 '쥬미츠마루'로 변경하면서 제2의 도약에 나섰다. 특히 공장 시설에 대한 국제품질규격 ISO9001 획득 등을 통해 식탁보와 발코니 매트 등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힘입어 미츠마루는 협력기업을 포함해 연 10억엔의 매출을 올리는 작지만 내실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했으며 최근에는 재활 건강기구 개발에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자원 절약과 친환경 제품 생산 등을 목표로 반세기에 걸쳐 기업을 경영해온 강 사장은 고향 제주에 대해서도 "환경을 지키면서 특산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리브 재배와 식물공장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향을 피력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